

闘病中에서도 韓國技術史를 남겨



成 佐 慶 博 士
(1920 - 1986)

成佐慶박사는 1920년 2월 13일 京畿道 楊平郡 西宗面 汶湖里에서 成樂淳씨의 長男으로 태어났다. 父親은 아들의 敎育을 위하여 서울로 이사했다.

成博士는 齊洞普通學校와 第一高等普通學校(現京畿高等學校前身)를 졸업한 후 京城高等工業學校 應用化學科에 진학하였다.

당시 日人과 共學하던 이 學校에서 늘 두각을 나타낸 成博士는 졸업하던 해 無限한 向學의 꿈을 안고 東京工業大學 應用化學科에 입학하여 1942년 우수한 成績으로 졸업하였다.

東京工業大學과 京城帝國大學 理工學部에서 助手·副手로 근무하다 解放을 맞아 國立工業研究所의 有機化學科長과 서울大學校 工科大學의 敎수를 겸임하였다. 6.25동란 후에는 國防部 科學研究所의 副所長까지를 겸임하여 超人間的 努力을 하였다.

1961년 미국 SYRACUSE대학에서 연구를 마치고 귀국한 후는 漢陽大에서 産業經營大學院長으로 후진양성에 전념하다가 자리를 옮겨 原子力研究所長과 原子力院長을 지내기도 했다.

1968년 仁荷工科大學學長에 취임하여 校勢擴張에 크게 공헌하여 4년후 仁荷大學을 綜合大學校로 발

전시켜 오늘의 仁荷CAMPUS를 건설함으로써 仁荷大學校의 발전과 더불어 그 歷史에 길이 빛날 업적을 남기었다. 따라서 總長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敎授로 그리고 定年後에는 名譽敎授로 계속 敎壇을 지키며 후진양성에 진력하였다.

1976년 韓國化學研究所 初代所長에 취임하여 政府豫算이 아닌 民間出捐金으로 이 研究所를 설립 운영하여 오늘의 기반을 만들었다. 지금 이 研究所가 遂行하고 있는 研究實績과 化學工業界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볼 때, 참으로 奇蹟的 創造를 이룩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79년에는 科學技術處長官으로 入閣하여 科學技術行政의 總帥로 活躍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다.

成博士의 지도를 받은 弟子의 數도 많고 우수한 인재도 많아 지금 우리나라 化學工學界의 各分野에서 最高責任者級으로 活躍하고 있는 弟子가 많으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도 많다.

成博士는 解放後 우리나라 化學·化工學界의 先頭走者로서, 牽引車로서, 指揮者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 분이라 하겠다.

成博士의 人品은 溫和·仁慈하고 소탈·円滿하여 사람을 끌어들이는 魅力이 있었으니 機關長으로 人和團結을 이룩하는 長者之風이 있었다.

취미로는 愛酒·愛棋하였고 골프도 즐기는 폭넓은 취미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學問 研究와 修身 및公私에는 嚴하고 절저하였다.

李福寧女史와의 사이에 一男四女를 두었으며, 不意의 病魔에 시달리면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闘病하면서 平素에 構想하던 韓國技術史를 執筆하기 시작, 心血을 기울여 탈고한 후 病床에서 校正을 끝내고 臨終 4일전에 出刊된 책 손에 쥐고 이미 몽롱한 意識中에서 天井을 바라보던 그 莊嚴하고 嚴肅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成博士는 本人이 걸어온 길의 總整理를 이 冊에 담아 後進에게 마지막 좋은 선물로 남기고 1986년 7월 17일 유명을 달리하였다.

李 泰 鉉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監事)